이	름	:																	
						마	음	대	로		의	자							
	당	나	귀		한		마	리	가		도	토	리	를		바	구	니	에
가	득		담	아		집	으	로		돌	아	가	고		있	었	어	요	·
얼	마	쯤		가	다		보	니		의	자	가		하	나		놓	여	
있	었	지	요	·															
	“	마	·	음	·	대	·	로	·	의	·	자	?	정	말		고	마	운
의	자	로	군	·	그	럼		좀		쉬	었	다		갈	까	?”			
	마	음	대	로		의	자		위	에		도	토	리		바	구	니	를
놓	고		당	나	귀	는		잠	이		들	었	어	요	·	얼	마		뒤
곰	이		‘	마	음	대	로		의	자	’	옆	을		지	나	가	게	
되	었	어	요	·	“	마	·	음	·	대	·	로	·	의	·	자	?	그	런

데		이	건		도	토	리	잖	아	?	정	말		맛	있	겠	는	걸	·
마	음	대	로		의	자	니	까		그	냥		먹	어	도		되	겠	지
곰	은		바	구	니	에		담	겨	있	는		도	토	리	를		모	두
먹	어		버	렸	어	요	·												
	“	어	!	이	거		어	쩌	지	?	바	구	니	가		텅		비	었
네	·	꿀	이	라	도		놓	고		가	야	지	·”	곰	은		빈		바
구	니	에		도	토	리		대	신		꿀	병	을		놓	고		집	으
로		돌	아	갔	어	요	·	얼	마		뒤	,	따	뜻	한		빵	을	
든		여	우	도		‘	마	음	대	로		의	자	’	옆	을		지	나
가	게		되	었	어	요	·												
	“	마	·	음	·	대	·	로	·	의	·	자	?	이	거		정	말	
고	마	운	데	,	마	음	대	로		하	라	니	…	·”					

여	우	는		곰	이		도	토	리		대	신		놓	고		간		꿀
을		‘	냠	냠	’	맛	있	게		먹	었	어	요	·					
	“	그	런	데		빈		바	구	니	만		남	겨		두	자	니	
미	안	한	데	·	빵	이	라	도		놓	고		가	야	지	·”			
여	우	는		빵	을		바	구	니	에		담	아		놓	고		집	으
로		돌	아	갔	어	요	·	얼	마		뒤	,	밤	을		잔	뜩		주
워	든		다	람	쥐		세		마	리	가		‘	마	음	대	로		의
자	’	옆	을		지	나	가	게		되	었	어	요	·					
	“	마	·	음	·	대	·	로	·	의	·	자	?	그	런	데		이	건
빵	이	잖	아	?	정	말		맛	있	겠	는	걸	·	마	음	대	로		의
자	니	까		그	냥		먹	어	도		되	겠	지	?	그	런	데		빈
바	구	니	만		남	겨		두	자	니		미	안	한	데	·	밤	이	라

도		놓	고		가	자	.”												
	“	그	래	,	그	래	·	좋	아	.”	다	람	쥐	들	은		빈		바
구	니	에		밤	을		담	아		놓	고		집	으	로		돌	아	갔
어	요	·	잠	에	서		깨	어	난		당	나	귀	가		눈	을		떴
어	요	·																	
	“	아	함	~	·	잘		잤	다	·	아	니		도	토	리	가		모
두		밤	으	로		변	했	네	·	도	토	리	가		자	라	서		밤
이		되	었	나	?”	당	나	귀	는		어	리	둥	절	했	지	요	·	
	정	말		도	토	리	가		자	라	서		밤	이		된		것	일
까	요	?																	